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2호(2006)

브라질의 인종관계 인식 실태:
상파울루 시민들을 중심으로

김 영 철

<Abstract>

Current Situations of Racial Consciousness in Brazil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racial relations in Brazil, based on the survey about racial problems. To this aims I was analyzed racial democracy, discriminated race and social sector, affirmative actions by gender, age groups, race, academic background and origin nations. And I tried to find a orientations of black movement in Brazil.

The survey shows that most brazilians have a negative consciousness about racial democracy and recognized racial discriminations in brazilian society. And Black is discriminated unique race in others on account of traditions and history of slave. This discriminations occurred in society as a whole. Particularly, the discriminated races was suffered many times in the workplace. Affirmative actions was overdued by political reasons and indifference. Discriminative situations was disregarded by an illusion of racial democracy. Brazilian black couldn't do political actions to claim human rights because of lacking of racial identity. Really, black movement aims to approve black cultural values through cultural actions all the while. Therefore, black movement have to expand political actions and demand human rights in order to overcome discriminations in brazilian society.

[Key Word: Brazil / Racial Democracy / Mulato / Black / Discrimination]
[주제어: 브라질 / 인종적 민주주의 / 물라토 / 흑인 / 차별]

Ⅰ. 들어가면서

브라질은 다인종·다문화 사회이다. 때문에 인종과 문화 차이로 인해 사회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반면 '조화로운' 통합으로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브라질의 사회 통합은 대립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가 동시에 나타난다. 지금까지 브라질의 다인종·다문화성에 관한 논의들은 협력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대립적 관계를 설명하는 논의들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제한되었다.

다인종성과 다문화성은 브라질 사회의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임과 동시에 대립적 관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인종과 문화 차별 현상은 대립적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현상이다. 인종차별은 어떤 인간 집단의 공통적인 신체적 특성, 가치와 경험에 기초한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것이라면, 문화차별은 공통적인 문화를 지닌 민족 집단에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종차별과 문화차별은 구별되는데 브라질에서는 문화차별이 확대되어 있진 않다. 대신 인종차별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종종 보도되고 있다. 브라질의 인종차별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적인 통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도적으로 차별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들이 브라질인들 스스로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인들이 인종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브라질의 인종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 인종, 학력, 출신민족 구분을 통해 인종적 민주주의, 피차별 인종과 영역, 차별철폐정책이 지연된 이유, 피차별 인종인 흑인 운동을 분석하고, 흑인 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브라질의 인종과 인종적 민주주의

1. 브라질의 인종관계

브라질은 인종 혼혈이 폭넓게 진행된 국가이다. 따라서 인종관계도 전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복잡하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인종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안정적인 인종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브라질의 인종관계의 해석을 설명하고 중심적인 개념인 인종적 민주주의를 통해 인종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백인 엘리트들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인들은 인종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비백인 집단들을 정치·경제적 활동에서 배제시켜 왔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서 피차별 인종이 사회계층의 최하위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종 문제가 마치 사회계층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으로 오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왜 피차별 인종들이 사회 저층에 속하게 되었는가보다는 현상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가 인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형성 가능한 부의 정도가 결정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인종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둘째,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인종적 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 브라질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인종차별을 법·제도를 통해 제한시키지 않았고, 인종간의 집단적 폭력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아 인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설사 인종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인종 문제가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발전하지 못했다.

셋째, 혼혈인이 점점 증가하면서 혈통과 관련된 논의와 분쟁들을 완화시켰다. 혼혈은 인종적·민족적 혈통의 순수성보다는 그 사회에서 속한 구성원들의 외형적·신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백인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다음이 혼혈인(물라토), 인디오와 흑인이 최하위를 차지하는 인종질서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인종 질서에서 혼혈인들은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계층화되어 있는 개인의 인종적 지위가 혼혈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즉, 인종적 백인화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브라질인들은 결혼 상대자로 자신보다는 밝은 피부색을 지닌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넷째, 인종적 정체성이 희석되어 있어 피차별 인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인식이나 활동이 매우 약하다. 인종적 정체성은 태생적이거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룹들간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경험에 기초해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체를 의미한다. 또한 정체성은 외부적인 힘이 작용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더욱 힘을 지니게 된다. 브라질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혈을 통해 인종 위계 질서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피차별 인종의 공동체적 의식을 약화시켜 집단적 행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인종관계에서 피차별 인종이 자신들의 사회적 상태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회가 권위주의적이라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대부분 무시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종관계는 대내·외적인 변화가 발생해야 바뀔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인종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서 환경도 변화되었다(Do Nascimento 2006; 김영철 2005, 152-156). 또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권의 논리가 브라질 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위에서 설명한 브라질의 인종관계를 변화시켰다. 제도적 변화가 인종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의식이나 인종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2. 인종적 민주주의와 물라토

인종적 민주주의는 브라질이 '조화로운 인종'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관계적·제도적 민주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에 인종적 혼혈 현상에 대한 정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남아공과 같은 집단적 폭력과 대립을 지닌 다른 다인종 사회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종적 민주주의는 정치적·제도적 의미가 아닌 사회적·인종적 의미가 된다.

사회적 의미인 인종적 민주주의는 포르투갈의 전통에서 기인한다. 포르투갈의 사회적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인 질서가 인정되며 개인적인 관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적 민주주의도 인종의 위

계질서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현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인종적 민주주의는 몇 가지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인종적 민주주의는 브라질 사회가 지향하는 인종관계와 혼혈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다인종 사회에서 인종 간의 권력을 분배하는데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립과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혼혈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차별과 피차별 인종 간의 경계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혼혈이 확대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인종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인종적 민주주의는 브라질이 어떻게 다인종들을 통합했는가를 나타내 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인종 사회는 통합과정에 대립과 협력의 관계가 단일 국가나 사회보다 훨씬 복잡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캐나다의 경우처럼 정치적·제도적 방법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혼혈을 통해서도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혼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인종적 민주주의라면 브라질 사회는 그 토대 위에 통합되는 방식을 형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종적 민주주의는 브라질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민주화 이후 브라질은 다인종·다문화 사회임을 인정하고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브라질의 민주화 수준을 높여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민주주의가 개인적·집단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면, 많은 인종(혹은 민족)이 함께 생활하는 개개 인종 집단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사회적·인종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 사회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의 사회모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종적 민주주의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인종이 혼혈인이다. 물라토로 대표되는 인종으로 브라질인의 대표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의 대립적 구조 속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흑인들이 지향하는 계층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물라토라고 하는 인종은 브라질 사회의 인종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 집단이 된다. 반면, 중간적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종 문제에 있어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어떤 집단적 활동을 위한 집단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약하다. 그래서 흑인 운동가들은 이러한 인종적 분류를 거부하여 물라토를 백인과 흑인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과정에서 흑인문화가 인종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Ⅲ. 조사 및 자료 분석방법

1. 조사 방법

본 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현지조사는 2004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상파울루 시내에서 시험 조사를 실시한 이후 설문 수정을 거쳐 1월 17일까지 상파울루 대학교, 쇼핑센터, 파울리스타 거리와 버스터미널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조사 실시 지역은 상파울루 시민들의 생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면접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과 일대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설문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응할 수 있어 설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문조사는 브라질 인종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개인적인 특성, 인종적 민주주의, 인종차별, 차별 철폐법, 흑인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27개 항의 질문을 만들었다. 질문 내용은 사전 조사에서 확보된 문헌 자료들을 활용하여 브라질의 인종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으며, 여기에 개인적인 관심 사항을 포함시켰다.

설문 형태는 몇 가지 질문을 제외하고는 주로 폐쇄형과 택일형을 채택했다. 이러한 설문 형태는 응답률을 높이고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석적 오류를 줄이는데 용이하다.

2.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면 분석을 실시했다. 빈도분석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빈도 분석에 근거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교차분석은 어떤 특성 변수에 대한 다른 변수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인종, 출신민족을 기준 변수로 하여 변수들을 교차분석하여 상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운용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변인간

의 인과관계를 도출하여 설문조사 분석이 단순한 표면적인 분석 수준을 넘어 변인들간의 의미있는 분석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요인분석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횡단면 분석을 사용했는데 횡단면 분석은 얻어진 원시자료를 단순히 가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변수 상호간의 관련성과 변수 값들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은 분석 방법이다. 특히, 기준변수들이 많은 경우에 주관식 답변 문항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표준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3. 분석 대상

이번 여론 조사에는 188명이 응해주었는데, 그 중에 상파울루 출신자가 150명, 미나스 제라이스 주 출신자가 8명, 그리고 세아라주 출신이 6명이고 기타 지역 출신이 11명이었으며 무응답자가 13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0%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여론 조사를 실시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공교롭게도 각각 50%를 차지하여 남・여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 의식조사의 구성

<table>
<tr><th>분류</th><th>성별</th><th>연령</th><th>인종별</th><th>학력별</th><th>출신민족별</th></tr>
<tr><td rowspan="8">전체</td><td rowspan="3">남성: 93(50%)</td><td>10대: 13(7)</td><td>백인: 121(64.4)</td><td>초등중퇴: 7(3)</td><td>포르투갈계: 85(45.2)</td></tr>
<tr><td>20대: 117(62.9)</td><td>흑인: 7(3.7)</td><td>초등졸업: 7(3.7)</td><td>이탈리아계: 43(22.9)</td></tr>
<tr><td>30대: 36(19.1)</td><td>물라토/모레누: 35(18.6)</td><td>중등중퇴: 19(10.1)</td><td>스페인계: 11(5.9)
독일계: 6(3.2)</td></tr>
<tr><td rowspan="5">여성: 93(50%)</td><td>40대:8(4.3)</td><td>황인종(인디오) : 13(6.9)</td><td>중등졸업: 40(21.3)</td><td>유대인: 1(0.5)
시리아/레바논: 2(1.1)</td></tr>
<tr><td>50대:10(5.3)</td><td rowspan="2">기타: 5(2.7%)</td><td>대학재/중: 69(36.7)</td><td>일본계: 8(4.3)</td></tr>
<tr><td>60대:2(1.1)</td><td rowspan="2">대학졸업: 44(23.4)</td><td>아프리카계: 7(3.7)</td></tr>
<tr><td>무응답:2(1.1)</td><td>무응답: 7(3.7)</td><td>기타: 9(4.8)</td></tr>
<tr><td>무응답: 2(1.1)</td><td>무응답: 2(1.1)</td><td>무응답: 16(8.5)</td></tr>
<tr><td>합계</td><td>188</td><td>188</td><td>188</td><td>188</td><td>188</td></tr>
</table>

전체 응답자 중에는 10대가 7%, 20대가 62.9%, 30대가 19.1%, 40대가 4.3%, 50대가 5.3%, 60대 이상이 1.1%, 그리고 무응답자가 1.1%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별히 연령대를 지정하여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20대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설문조사자들이 20대였고 설문조사 대상 지역에 대학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사회에서 20대는 사회변화를 가장 잘 수용하고 있는 연령층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브라질의 인종 의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전체응답자의 64.4%, 흑인이 3.7%, 물라토가 18.6%, 황인종이 6.9%, 기타 2.7%, 무응답자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전체 인구의 인종 구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브라질 인종은 백인 53.7%, 물라토 38.5%, 흑인 6.2%, 기타(황인종)0.9%, 무응답 0.7%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대학과 상업지역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조사에 적용한 인종분류가 브라질의 인구통계 조사와 차이가 있어 밝은 물라토들이 백인으로 자신을 표기했기 때문이었다.

브라질은 136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기준으로 인종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법을 이용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종 혼혈이 단순한 기준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다양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인종 구분을 흐리게 하여 인종적 정체성을 희석시켜 브라질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 때문이다. 셋째, 인종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백인, 흑인, 물라토, 황인종과 기타로 인종을 구분했다. 그렇게 한 것은 인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인종간 인식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브라질인들이 지니고 있는 구분법을 따를 경우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분류 범위를 축소시켰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초등중퇴 3%, 초등졸업 3.7%, 중등중퇴 10.1%, 중등졸업 21.3%, 대학재중 36.7%, 대졸 이상이 23.4%, 무응답이 1.1%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서도 브라질의 일반적 통계와는 차이가 있는데, 브라질의 19-24세 청소년들 대학 진학율은 9%에 그치고 있다(Almanaque Abril, 122).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비교적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은 역시 대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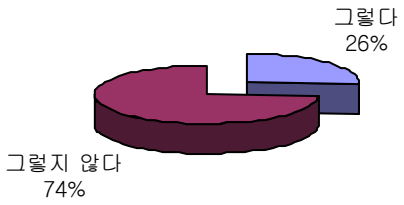
상업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신 민족 구분에서는 포르투갈계가 45.2%, 이탈리아계가 22.9%, 스페인계가 5.9%, 독일계가 3.2%, 유대인이 0.5%, 시리아/레바논이 1.1%, 일본계가 4.3%, 아프리카계가 3.7%, 기타 4.8%, 무응답자가 8.5%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에는 브라질인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출신 민족적 특성보다는 자신이 속하고 성장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Ⅳ. 인종 관련 의식 조사 분석

1.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브라질은 인종적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남녀 모두 25%가 인종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는 것은 이색적이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50대와 60대가 인종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20,30대에서는 각각 83.3%, 71.4%가 인종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림 1>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표 2> 연령별 인종적 민주주의 인식 정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그렇다	9(69.2)	19(16.7)	10(28.6)	3(37.5)	6(60.0)	1(50.0)	48(26.4)
그렇지 않다	4(30.8)	95(83.3)	25(71.4)	5(62.5)	4(40.0)	1(50.0)	134(73.6
전체	13(7.1)	114(62.6)	35(19.2)	8(4.4)	10(5.5)	2(1.1)	182(100)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 사회의 인종관계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브라질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사회 통합을 위해 강조되어 온 인종적 민주주의적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반면 20,30대들은 브라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종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 이후 인종 차별 철폐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면서 차별적 현상이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학력별 분석에서는 초등 교육만 받은 응답자들 중 71%가 인종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대학재학 중인 응답자들의 92%가 인종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브라질의 인종적 현실은 민주주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출신 민족 구분에서도 대부분이 인종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특히, 일본계를 비롯한 이민 집단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민족 집단은 브라질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 문화적 장벽을 경험했으며 문화 장벽이 곧 인종적 차별로 수용되었다.

<표 3> 인종별 인종적 민주주의 인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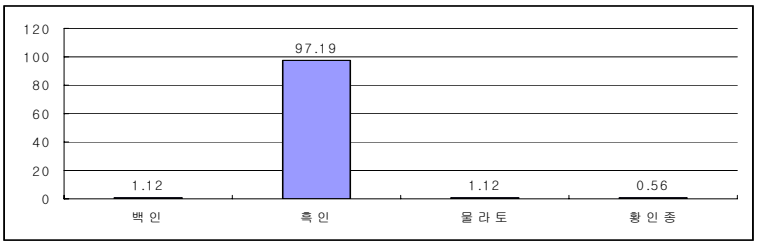
	백인	흑인	물라토	황인종	기타	합계
그렇다	30(25.2)	1(14.9)	14(40)	0(0)	3(60)	48(27.1)
그렇지 않다	89(74.8)	6(85.7)	21(60)	11(100)	2(40)	129(72.9)
전체	119(67.2)	7(3.9)	35(19.8)	11(6.2)	5(2.8)	177(100)

인종별 분석에서도 인종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대답이 72.9%를 차지했다. 백인 응답자 중 74.8%, 흑인은 85.7%, 물라토는 60%, 황인종은 100%가 '그렇

지 않다'고 대답했다. 특이하게도 물라토는 전체의 40%가 인종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대답을 한 것은 피차별 인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왜 물라토가 상대적으로 높게 브라질의 인종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그것은 혼혈이 브라질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종적 민주주의의 상징적 존재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 인종연구자들은 물라토가 브라질의 인종 문제에서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차별 인종에 대한 인식

피차별 인종에 대한 질문에서는 97.19%가 흑인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학력, 인종, 출신 민족 구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 분석에서 남성들은 100%가 흑인라고 대답했다. 또한 연령별 분석에서도 97.12%가 동일한 응답을 했다.



<그림 2> 피차별 인종

<표 4> 인종별 피차별 인종

	백인	흑인	물라토	황인종	기타	합계
백인	2(1.7)	0(0)	0(0)	0(0)	0(0)	2(1.1)
흑인	113(97.4)	7(100)	31(94.0)	13(100)	4(100)	168(97.1)
물라토	1(0.9)	0(0)	1(3)	0(0)	0(0)	2(1.2)
황인종	0(0)	0(0)	1(3)	0(0)	0(0)	1(0.6)
전체	116(67.0)	7(4.0)	33(19.1)	13(7.5)	4(2.3)	173(100)

인종구분에 따른 평가에서도 응답자의 97.1%가 흑인이 피차별 대상자라고 답했다. 특히, 흑인과 황인종 모두가 흑인이 피차별 대상자라고 응답했다. 흑인과 황인종(인디오)은 브라질 사회에서 소수 인종에 속한다. 그러므로 양쪽 모두가 피차별 대상 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별 인종은 오직 흑인만이 해당된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민족별 차별 인종에 대한 응답에서도 절대 다수가 흑인을 피차별 인종으로 응답했다. 포르투갈계와 이탈리아계를 제외한 모든 민족 집단의 응답자들이 공통으로 흑인을 피차별 인종으로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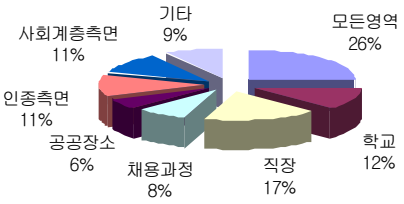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흑인들이 브라질 사회에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19세기 말의 과학적 인종주의, 식민 기간의 노예 경험, 주류사회에 포함되려고 하는 의지와 상반된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이다. 브라질에서 흑인은 식민과정에서 노예로 유입되었고, 19세기 말 유럽의 과학적 인종주의 논의가 수용되어 인종적 위계질서를 형성하면서 흑인이 최하층을 이루게 되었다.

<표 5> 민족별 피차별 인종

	포르투갈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독일계	유대인	시리아/레바논	일본계	아프리카계	기타	합계
백인	1(1.2)	1(2.5)	0(0)	0(0)	0(0)	0(0)	0(0)	0(0)	0(0)	2(1.2)
흑인	80(96.4)	39(97.5)	11(100)	5(100)	1(100)	2(100)	8(100)	6(100)	9(100)	161(97.6)
물라토	1(1.2)	0(0)	0(0)	0(0)	0(0)	0(0)	0(0)	0(0)	0(0)	1(0.6)
황인종	1(1.2)	0(0)	0(0)	0(0)	0(0)	0(0)	0(0)	0(0)	0(0)	1(0.6)
전체	83(50.3)	40(24.2)	11(6.7)	5(3.0)	1(0.6)	2(1.2)	8(4.8)	6(3.6)	9(5.4)	165(100)

그럼 왜 인디오는 피차별 대상이 되지 않는가? 브라질에서 인디오는 사회통합에서 완전히 배제된 고립된 인종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된다. 분리된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디오들은 브라질 사회의 보호 대상인 반면 흑인들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3. 피차별 영역에 대한 인식



<그림 3> 피차별 영역에 대한 응답

피차별 영역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26%가 '모든 영역'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직장' 이라는 응답자가 17%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여기에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직장' 영역에 포함시킬 경우 약 25%에 이르러 '모든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브라질 사회 전반에 차별적

<표 6> 인종별 피차별 영역

	백인	흑인	물라토	황인종	기타	합계
모든 영역	20(15.7)	2(1.6)	5(3.9)	2(1.6)	1(0.8)	30(23.6)
학교	14(11.0)	0(0)	1(0.8)	1(0.8)	0(0)	16(12.6)
직장	20(15.7)	0(0)	3(2.7)	0(0)	0(0)	23(18.1)
채용과정	5(3.9)	0(0)	3(2.4)	1(0.8)	0(0)	9(7.1)
공공장소	4(3.1)	1(0.8)	3(2.4)	0(0)	0(0)	8(6.3)
인종적측면	11(8.7)	3(2.4)	0(0)	1(0.8)	0(0)	15(11.8)
사회계층적 측면	7(5.5)	0(0)	6(4.7)	1(0.8)	1(0.8)	15(11.8)
기타	6(4.7)	0(0)	2(1.6)	2(1.6)	1(0.8)	11(8.7)
전체	87(68.5)	6(4.7)	23(18.1)	8(6.3)	3(2.7)	127(100)

현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인종별 차별 영역 인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회전반적인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종 차별 극복 방안도 사회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력별 피차별 영역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25.6%가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17.3%가 '직장'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차별 받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채용과정에서도 비교적 높은 차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차별 인종인 흑인은 경제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인종 문제가 단순한 인종관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흑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하층민에 속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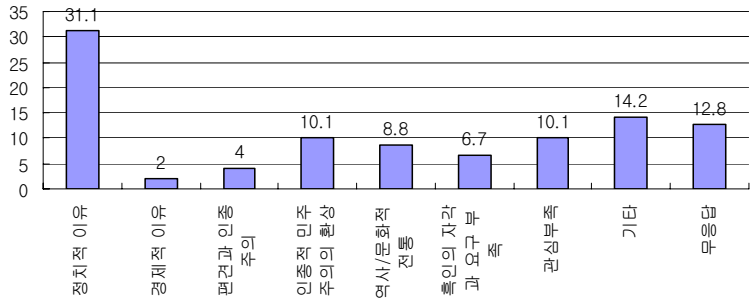
<표 7> 인종별 차별철폐정책의 지연 이유

	백인	흑인	물라토	황인종	기타	합계
정치적 이유	32(31.4)	0(0)	7(30.4)	4(36.4)	1(100)	44(30.8)
경제적 이유	3(2.9)	0(0)	0(0)	0(0)	0(0)	3(2.1)
편견과 인종주의	4(3.9)	0(0)	0(0)	1(9.1)	0(0)	5(3.5)
인종적 민주주의의 환상	11(10.8)	0(0)	1(4.3)	1(9.1)	0(0)	13(9.1)
역사/문화적 전통	11(10.8)	1(16.7)	0(0	1(9.1)	0(0)	13(9.1)
흑인의 자각과 요구 부족	6(5.9)	1(16.7)	2(8.7)	1(9.1)	0(0)	10(7.0)
관심부족	9(8.8)	2(33.3)	3(13.0)	1(9.1)	0(0)	15(10.5)
기타	16(15.7)	1(17.7)	4(17.4)	0(0	0(0)	21(14.7)
무응답	10(9.8)	1(16.7)	6(26.1)	2(18.2)	0(0)	19(13.3)
전체	102(71.3)	6(4.2)	23(16.1)	11(7.7)	1(0.7)	143(100)

<표 8> 학력별 피차별 영역

	초등중퇴	초등졸업	중등중퇴	중등졸업	대학재중	대학졸업	합계
모든영역	1(3.3)	0(0)	3(27.2)	2(6.7)	19(33.9)	9(30)	34(25.6)
학교	1(33.3)	1(33.3)	0(0)	2(6.7)	7(12.5)	5(16.7)	16(12.0)
직장	0(0)	2(66.7)	0(0)	5(16.7)	5(8.9)	11(36.7)	23(17.3)
채용과정	0(0)	0(0)	2(18.2)	1(3.3)	6(10.7)	1(3.3)	10(7.5)
공공장소	1(33.3)	0(0)	1(9.1)	3(10)	3(5.3)	0(0)	8(6.0)
인종적 측면	0(0)	0(0)	2(18.9)	6(20)	7(12.5)	0(0)	15(11.3)
사회계층적측면	0(0)	0(0)	3(27.3)	4(13.3)	4(7.1)	4(13.3)	15(11.3)
기타	0(0)	0(0)	0(0)	7(23.3)	5(8.9)	0(0)	12(9.0)
전체	3(2.2)	3(2.2)	11(8.3)	30(22.5)	56(42.1)	30(22.5)	133(100)

4. 차별 철폐법이 지연된 이유



<그림 4>차별철폐법이 지연된 이유

브라질은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인종차

별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철폐법이 민주화 이후에나 시행되었다. 법·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인종 관계가 민주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행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차별 철폐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 중 31.1%가 '정치적 이유'라고 대답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직접 쓰도록 유도했는데, 응답자들 중에 10.1%가 '인종적 민주주의의 환상'으로 인해 브라질 사회가 인종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인종적 민주주의 개념이 브라질 사회 통합을 위해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활용한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개념이 인종관계를 파악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역사/문화적 전통'때문이라는 대답도 8.8%를 차지했다. 과거의 식민지 경험과 노예제가 브라질 사회에서 인종차별철폐 정책과 법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대답했다.

교육 수준별 분석에서는 초등과 중등학력의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정치적 이유'와 '인종적 민주주의의 환상'으로 제한된 응답을 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차별 철폐법 시행이 지연되는 이유를 다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식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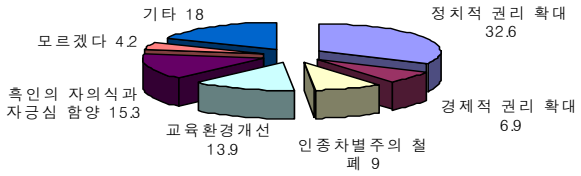
<표 9> 학력별 차별철폐법 지연 이유

	초등 중퇴	초등 졸업	중등 중퇴	중등졸업	대학재/중	대학졸업	합계
정치적 이유	1(25)	3(60)	4(30.8)	7(22.6)	19(30.1)	12(36.4)	46(30.9)
경제적 이유	0(0)	0(0)	0(0)	0(0)	1(1.6)	2(6.1)	3(2.0)
편견과 인종주의	0(0)	0(0)	0(0)	0(0)	4(6.3)	2(6.1)	6(4.0)
인종적 민주주의의 환상	1(25)	0(0)	1(7.7)	3(9.7)	8(12.7)	2(6.1)	15(10.1)
역사/문화적 전통	0(0)	0(0)	0(0)	2(6.4)	8(12.7)	3(9.1)	13(8.7)
관심부족	0(0)	0(0)	1(7.7)	7(22.6)	5(7.9)	2(6.1)	15(10.1)
기타	2(50)	2(40)	3(23.1)	4(12.9)	5(7.9)	5(15.1)	21(14.1)
무응답	0(0)	0(0)	215.4)	6(19.3)	7(11.1)	5(15.1)	20(13.4)
전체	4(2.7)	5(3.5)	13(8.7)	31(20.8)	63(42.3)	33(22.1)	149(100)

차별철폐정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인종별 분석에서는 백인 응답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정치적 이유'때문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흑인들은 전체 비율에서는 적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긴 했지만 관심 부족, 역사/문화적 전통, 흑인의 자각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흑인 응답자들은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5 흑인운동의 선결 문제

이상과 같이 흑인들은 브라질 사회 내에서 피차별 인종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철폐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종차별철폐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흑인운동단체들은 어떤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운동을 전개해야 인종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점들을 평가해보기 위해 흑인운동이 선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림 5> 흑인운동의 선결 문제

전체 응답자 중 32.6%가 '정치적 권리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는 '흑인의 자의식과 자긍심 함양'이 15.3%를 차지해 교육환경 개선이나 인종차별주의 철폐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 중에 정치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백인이 전체의 71.4%를 차지한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의 결과이다.

<표 10> 인종별 흑인운동 선결 과제

	백인	흑인	물라토	황인종	기타	합계
정치적 권리 확대	36(36.0)	1(14.9	6(30.0)	2(18.2)	1(50)	46(32.8)
경제적 권리 확대	8(8.0)	1(14.9)	0(0)	1(9.1)	0(0)	10(7.1)
인종차별주의 철폐	10(10)	1(14.3)	1(5.0)	1(9.1)	0(0)	13(9.3)
교육환경개선	13(13.0)	0(0)	3(15.0)	3(27.3)	0(0)	19(13.6)
흑인의 자의식과 자긍심 함양	13(13)	1(14.9)	4(20.0)	2(18.2)	0(0.0)	20(14.3)
모르겠다	5(5.0)	0(0)	0(0)	1(9.1)	0(0.0)	6(4.3)
기타	15(15)	3(42.8)	6(30)	1(9.1)	1(50)	26(18.6)
전체	100(71.4)	7(5.0)	20(14.3)	11(7.8)	2(1.4)	140(100)

이를 다시 인종별로 분석해 보면, 백인은 전체의 36%가 '정치적 권리 확대'라고 대답했고, 물라토도 전체의 30%가 그렇게 대답했다. 흑인들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대답을 했으나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어떤 특별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는 '흑인의 자의식과 자긍심 함양' 14.3%, 교육환경 개선 13.6%, 인종차별주의 철폐 9.3%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권리 확대'라고 대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에서 살펴본 차별 영역에서 직장과 채용과정에서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결과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보면 브라질 흑인 운동은 정치활동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의 흑인운동은 미국이나 남아공 등과 달리 정치 권리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문화운동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았다. 흑인운동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Ⅴ. 맺음말

브라질은 다인종·다문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종은 사회의 안정과 불안정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종 관계의 안정도

가 사회발전을 결정할 수 있다. 인종은 사회적 구성체로서 통합과 분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인종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브라질인들은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은 인종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으며, 브라질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브라질인들은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인종차별적 환경에서 차별 받는 인종은 흑인이었다. 흑인들은 브라질의 역사/문화적 전통에 의해 차별받고 있었다. 식민과정에서 흑인들은 노예로 유입되면서 흑인은 곧 노예라는 등식과 노예는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는 등식이 형성되어 노예제 폐지 이후에 줄곧 브라질인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었다.

인종 차별은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가장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에서 인종차별이 특정한 인종에 집중된다면 피차별 인종이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흑인들이 하위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브라질의 상황이 이를 말해 준다.

차별이 사회전반에 확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차별 철폐 정책 시행이 지연되었다. 또한 인종적 민주주의 환상으로 인해 사회에서 인종차별적 상황이 무시되어 왔다. 즉, 브라질 사회가 인종적 민주주의를 방패삼아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 현상들을 방치한 결과를 가져왔다.

차별 받는 흑인은 차별적 환경으로 인해 강력한 인종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이나 브라질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대신에 지속적인 차별로 인해 차별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의 흑인운동이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문화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흑인들의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권리 확대 운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이루어진 흑인 운동은 문화운동 중심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흑인의 문화적 가치는 인정받고 있지만 인종적 가치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흑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흑인운동은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치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재, 이광윤(2000),『포르투갈·브라질의 역사문화 기행』, 부산외대 출판부.

김영철(2005),『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와 흑인 인권: 브라질의 흑인 인권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8, No.4, pp.71-103.

_____(2005),『브라질의 인종관계와 인종차별철폐법안』, 이베로아메리카, 제7권 1호, pp.139-162.

_____(2004),『브라질의 인종적 민주주의와 흑인운동』, 포르투갈-브라질연구,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Vol.1, No.1, *Almanaque Abril 2004*, Editora Abril.

Cruz, levy(2002), *Democracia Racial, Uma Hipótese*, Fundação Joaquim Nabuco, Trabalhos para Discussão No.128/2002.

Cunha Junior, Henrique(1992),*Texto para o Movimento Negro,* São Paulo; EDICON.

Do Nascimento, Alexandre(2006/05/08), "AÇÃO AFIRMATIVA E UNIVERSALIZAÇÃO DOS DIREITOS", http://alex.nasc.sites.uol.com.br/textos/texto_mspe7.htm

Guimarães, Antonio Sérgio Alfredo(2003), "Racial Democracy", Department of Sociology, USP.

_____(2003), "The Race Issue in Brazilian Politics(The Last Fifteen Years)" in Kinzo, Mari D. and Dukerley (ed), *Brazil Since 1985, Economy, Polity and Society*, Londres,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pp.251-268.

Heringer, Rosana(2001). "Mapping of Actions and Oratory of Fighting Racial Inequality in Brazil". *Estud. afro-asiát.,* Vol.23, No.2, pp.1-43.

Sell, Sandro Cesar(2002), "Ação Afrimativa e Democracia Racial: Uma

Introdução ao Debate no Brasil", Florianópolis: Boiteux.
Telles, Edward(2003), *Racismo à Brasileira: Um Nova Perspectiva Sociológica,* Rio de Janeiro: Relume Dumará.

논문투고일자 : 2006년 5월 12일
심사완료일자 : 2006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12월 6일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E-mail : ibero@pufs.ac.kr